

제 18 장 사도 행전 Tape #8107

처신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그들 중에 몇은 나중에 가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듣겠다고 말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이 몇 있고, 꾸물거리는 자들도 몇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테네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 절 **“이 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오늘 아침에 말했지만, 고린도는 극도로 사악한 도시였는데, 그리스의 지협, 거기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에게 해에서 아드리아 해까지는 8km 미만입니다. 그 당시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의 중심에서 당신이 로마로 배를 통해 물건들을 보내려면, 고린도의 항구였던, 겐그리아 항구에서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이 더 좋았고, 더 쉬웠습니다. 배에서 짐을 내리고, 아드리아 해에서 육상으로 8km 를 화물로 실고 가서, 거기서 다른 배에 그것들을 싣고 로마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둘러서 가려면 그 거리가 수 백 km 는 족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밀레아만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며, 그곳을 향해하려면 극도로 믿을 수 없는 파도를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밀레아만을 거쳐 향해하는 것을 피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자고 분명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여행에 걸리는 시간을 몇 주는 절약했죠. 그것은 분명히 가고자 하는 훨씬 나은 궤도였습니다. 네로가 두 개를 이을 운하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으나, 돌이 너무 단단했기에, 그는 그것을 포기했으나, 나중에 수에즈 운하를 시공했던 엔지니어들에 의해 그 운하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수에즈 운하에서 주의 깊게 조사했고, 고린도 운하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드리아 해와 에게 해를 연결하는 거기에 이 위대한 운하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의 고대 도시에 인접해 있는데, 고린도는 사악함과 술 취함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들은 드라마에서 고린도의 남자를 표현할 때마다, 그 자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에게는 딱 어울리는 것이었으며, 어떤 사람이 매우 저질의 삶을 살았던 것과 관련해서 그들은 말할 때, 그가 고린도인과 같이 살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거의 일종의 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온 장소가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2 절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라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서,”** 3 절 **“생업이 같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은 직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AD 49 년에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는데, 이로 인해,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AD 54 년, 그 해에 여기에 왔으니,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뒤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를 이 장의 끝 부분에서 만나는데, 그 때는 바울이 주요 절기 중에 하나의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고린도를 떠날 때였습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까지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들은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의 끝 부분에 가면, 아볼로가 에베소로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아주 완전히 그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음을 그들의 인사와 함께 그들에게 보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를 썼을 때에도, 일 년 후,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인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베소에서 그들이 본래 시작했던 로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테에게 쓴 그의 맨 나중 편지에서, 그는 디모테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으나,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일자리를 찾았음도 틀림없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어 장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음, 그 당시 모든 랍비들은 직업을 갖는 것을 염두에 두었는데, 유대인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었고, 무슨 공인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항상 장사하는 것에 익숙하도록 교육되었습니다. 그 개념은 당신 자신을 후원할 수 있는 장사하는 직업으로 언제나 물러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모든 사람이 장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출생한 다소 지역에는, 그들이 세리리움이라 불리는 재료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모직을 가진 염소가 있었는데, 이는 텐트에는 아주 훌륭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젊은 나이에 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장사하는 것을 확실히 계승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대학과정을 공부하려고 10 대 때부터 일찍 다소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고, 그는 고린도, 거기에서 텐트를 만드는 자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절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권면하니라.” 그리스인들이 회당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왜냐하면 순결을 지지하였기 때문입

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아내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 따르면, 성공한 모든 남자는 여자 친구가 있어야만 했는데, 사회적인 용무로 남녀가 함께 가야할 때면 그는 그 여자를 데리고 갔고, 그는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첩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적인 자녀도 낳아야 했기 때문에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알지만, 주변을 방황하는 동안, 그 아내는 단지 법적인 아이들만 바라볼 뿐이죠. 당신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만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오직 아이들을 기르는 자로만 여기거나, 또는 법적인 아이들이나 낳는 자로 여기고, 자기는 여자 친구와 파티 주변을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은 결혼에 대한 신실함을 가르친 유대교의 신앙에 매료되었고, 결혼에 대한 헌신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신실함을 가져야만 한다는 가르침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자나 아내를 마치 노예보다 겨우 한 단계 정도 위로 보는 그리스인의 문화나 로마의 문화를 벗어나, 유대인의 종교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의 소지품이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기에, 아무런 특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신앙심에 끌려가게 되었고,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이는 유대인만큼이나 생활의 가장 높은 표준을 찾고자 하는 그리스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5 절 “실라와 디모테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놀림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 그가 회당에서 매주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금 실라와 디모테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바울에게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그 편지를 썼을 때, 마지막 장에서 그들이 자기에게 보낸 헌금에 대해 감사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를 돕는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원하는데 얼마나 신실했는지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고,

내가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뒤편에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왔고, 그 때 바울은 예수님께서 메시야이셨다는 것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그들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늘,” (그들은 서로 큰 논쟁을 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가져갔습니다. 롬 1:16 에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 라고 말했기에, 그들이 거절했을 때, 그는 그리스인에게 갔습니다. 20 장에서,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을 발견하는데, 거기서도 그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한 순결함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 그러므로 내가 이 날 너희로 하여금 증거 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음이라[행 20:26-27].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빛진 자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받았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그것이 얼마나 그를 변화시켰는지요! 그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고, 그가 일종의 책임이 있던 그들과 복음을 나눴다고 느꼈습니다. 즉, 그들의 피가 그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복음을 한 번 나누게 되면, 이제 책임은 그들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그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에서 건졌느니라 또는 의로운 자가 자기의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을 것이니라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의 곧 그가 행한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겠고 오직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겔 3:18-20].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었으나, 바울은 그 자신이 그것을 취해서 책임을 느꼈기에,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빛진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데 이 같은 긴급성의 감각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긴급성을 느꼈고, 의무와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노력에 있어 아마도 매우 지칠 줄 몰랐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내 손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죽음과 영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눴으므로 나는 그 의무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했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나누는 일에 진짜 내면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영접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어느 쪽으로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함으로 나의 책임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믿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믿게 하여 따르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과 나누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은 단지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었던 바울은 의무와 책임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누는데 그 책임까지 가졌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7절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의 집은 바로 회당에 붙어 있더라.” 즉, 회당과 벽을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했다는 것은, 그는 회당의 바로 다음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8절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오자, 많은 사람들도 나왔으며, 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9절 “그 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에게 말하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이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내 생각에는 바울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 약간 신중해졌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질투하고, 바울을 대항하여 모든 종류의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움,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봅시다. 그 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박해들이 있을 만큼 성공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기 시작할 때, 바울이 성공에 대해 조심스러워 할 정도로, 그는, 오, 오, 당신도 알지만, 실제로 지금 적들이 나를 치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이 시작되자마자, 아마도 역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있던 장소에서, 돌로 맞았고, 매를 맞았으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므로 침례를 받기 시작했고, 사역은 자라고 있었으나, 바울은 약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밤에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고 하셨는데,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현현의 약속과 고린도에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적했지만, 고린도는 아마도 복음전도가 성공되리라고 기대할 바가 거의 없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주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지역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들은, 당신 생각에, 오, 복음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우기에 좋은 도시일거라고 당신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당신 생각에, 거기를 쉬고 있습니다. 그곳이 세상의 마지막 지역으로, 당신이 아는 대로, 당신이 가기 하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많이 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아주 번번이 탐닉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 보려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단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내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에, 시편기자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안에 넣으셨습니다. 롬 8 장에서, 바울은, 피조물인 사람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창조했던 그 분에 의해, 그 분의 설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그 공허의 채움을 찾아보도록 내면에 공허함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 7:37 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공허함인데, 성전에서 그 분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마시라, 네가 만족하리라! 고 하셨는데, 그 갈급함에 대한 답을 당신은 여기서 찾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썼을 때(엡 5:18),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두 개의 매우 다른 것을 한꺼번에 놓았으니, 우리가, 왜 이것들을 한꺼번에 두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친구는 술에 취했고, 한 친구는 영에 충만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계가 무엇일까요? 관계는, 영에 충만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 그것이 영과 영의 생명 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복음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되면, 많은 경우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히피를 가지고 언급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추구를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승합차에 평화, 사랑을 페인트칠 하며, 그들은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왜 그들이 그것에 그렇게 이끌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이 사악한 고린도 도시에 내 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11 절 “바울이 거기에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 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지역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날 고린도 도시가 파괴되기는 했으나,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 총독 갈리오를 만나러 갔던 그 당시의 재판석을 지금 당신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13 절** “이르되 이 자가 율법을 여기면서 사람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한다 하거늘,” **14 절**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것에 대한 문제이거든 내가 참고 너희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되려니와,”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사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알아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15 절** “만일 이 일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는 내가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자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고,” 실제로 그들이 바울을 대적할 만한 법률적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교리적인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그것을 다루는 일에 대해 그 어떤 일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집달리와 같은 성구를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 절**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라.” 그들은 아마도 그가 그렇게 한 일이 있다고 고함지르고 주장했음으로, 거기에 있던 집달리들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17 절**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테네를,” (그는 아마도 그리스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었던 것 같습니다.)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상관치 아니하니라.”** 지금 갈리오가 옳지 못한 질책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것은 잘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당신이 알다시피, 그 사나이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바로 거기서 때리고 있었는데도, 그가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는 나쁘다고 말하는 질책을 할만 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형제 세네카에 의하면, 그는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친절과 관용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갈리오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앞에 가져온 문제들을 그가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우기고 있었기에, 그는 재판석으로부터 그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18 절 “이 일 후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배타고 시리아로 들어가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겐그리아는 고린도의 항구였습니다.) **“머리를 깎았더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나고 있는데, 시리아로,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이는 나사르 사람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민수기 6 장(민 6:2-21)에는,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보이고 싶으면, 당신의 머리를 깎고, 30 일 동안이거나 당신이 습관을 금지했던 날 동안, 고기를 먹지 않든지, 혹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은 주님께 헌신, 완전히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 나사르 사람의 서원은 온전한 헌신의 맹세가 됩니다. 30 일간의 끝에, 여러분은 다시 머리를 깎을지도 모르고, 혹은 60 일, 또는 할당했던 시간들을 지속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머리를 다시 깎을 것이고, 이 기간동안 머리에 자란 머리카락을 제단에서 태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인데, 내가 3 개월 동안, 6 개월 동안, 혹은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께 나의 생활을 성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별의 맹세인, 나사르인의 서원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그 서원을 완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머리를 다시 깎는 것과 제단에서 머리를 태우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여전히 그것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인데, 그는 율법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자였지만, 여전히 그는 율법의 전통적인 요소들 중에 어떤 전통을 따르거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별의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의 생애동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해, 구약성경에 있는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리고 그 동안 그녀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나사르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고기를 먹지 않도록, 술을 마시지 않도록, 혹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그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성별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의 머리가 잘리면,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약한 존재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는 주님께 헌신된 것이 깨어지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면, 그들은 강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힘은 놀랍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크게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공산주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트리 휴거스에 그렇게 많이 가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정당한 이유에 헌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

무들과 함께 사랑 안에 있으므로, 그들의 정당한 이유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 때문에 끔찍한 한 무리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산림관리자가 나무들을 자를 수 없도록 그들은 자신들을 나무에 묶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것입니다. 헌신 때문이라고 듣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를 떠날 그 때, 이 나사르인의 서원을 취했고, 그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19 절**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말합니다.) “**거기 남겨 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 **20 절**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거기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인데, 그들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했으나, 그는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승낙하지 못했습니다. **21 절**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이 다가오는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아, 그렇군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는 만약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가[약 4:13-15] 말 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일종의 비난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하려고 하며, 내일은 우리가 저것과 저것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당신은,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항상 표준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이 우리가 할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만약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원하신다면, 혹은 주님께서 뜻대로 하신다면, 내가 다시 당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야만 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 절**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항해를 했습니다. 가이사랴, 그곳은 해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 교회에게 문안하고,**”(그는 교회에 들렀거나, 문안을 했습니다. 그는 명절을 위해 거기 성전에서 제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시간으로는 한 기간에 해당되고, 거리로도 2,400km 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어떤 것도 모르는 그 시간과 그 여행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단지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독특한 여행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흥분되는 일을 꼭 찾는다라는 것은 재미있을 것입니다. 사건들과 발생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이 알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 유명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갔을 때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 모두에게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을 가진 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요구들과 반대되고 있는 세상과 공존하며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일종의 매우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죄 있는 사회에서 그것이 평화롭게 공존하여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땅의 소금으로, 당신이 피부의 벗겨진 곳에 소금을 놓는다면, 그것은 영리한 행동일 것인데, 만약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은 진짜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죄와 평화하면 안 됩니다.

23 절 “**거기서 얼마를 지난 뒤에,**”(안디옥에서, 이것은 바울의 모교회[home church]로서, 그는 안디옥에서부터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떠나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그곳들은 바울이 1 차와 2 차 선교 여행 때에 모두 갔던 곳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등지를 말입니다. 그 전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을 통과하여 돌아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강권하게 하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사역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가서, 격려하고, 그들을 강권하게 하고 있습니다.

24 절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대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는 성경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성경구절에 대해 큰 기초가 되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25 절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을 배워,”** (그 ‘길’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초기에, 교회의 초기 탄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그 길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길을 참고했던 것입니다. 9 장에 보면, 바울이 그 길에 속해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려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능력을 부여 받은 때를 말합니다. 그 길은 기독교의 길이거나 주님의 길로서, 삶에 있어 그 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처럼 인증되기 것보다는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는 인증을 바라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 그들에게 붙여졌던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붙여졌던 매체의 것,

일종의 예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말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이 뜨겁고,”** (이 사람은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영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요한은,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 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몰랐습니다. 오직 그는 죄로부터의 회개에 대해 설교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침례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6 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상태, 즉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안수하는 것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숙으로 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으로 발전합시다. 지금 아볼로는 성령님의 생명과 동행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성령과의 동행하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믿는 자들의 삶에 예컨대 반영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이 금방 분별했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서 놓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랑의 결핍일 것이고, 아마도 기쁨이 부족했을 것이며, 아마도 흥분의 부족일 것인데, 이것들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발산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으며,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주님의 것들에 대한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자, 바울은 즉시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지만, 아볼로가 몰랐던 것이 바로 그것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초보만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진정한 극치인, 성령과 동행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26 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풀어 설명해 주니라.”** 그들은, 보시오, 당신도 알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지요! 라고 말했고, 주의 길을 더 완전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27 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그것은, 그리스의 남쪽 지역인, 고린도의 지역입니다.) **“건너가고자 마음을 먹으므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자기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영접하라 하니라.”**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물론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로 가려는 자기의 의도를 알렸고, 그들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볼로를 받아들이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이르러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 **28 절 “이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 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음이라.”** 위대합니다. 그는 성경구절에 대해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구절들을 통해 그것들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아볼로에게 보인 재미있는 설명이 있는데, 그는 고린도에 가자마자 설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경구절에 매우 익숙해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영이 뜨거웠고, 고린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볼로에게 매료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약간의 분파가 발전했던 것이죠. 일종의 아볼로 추종자들로, 아볼로의 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우리는 베드로에게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는 사이에, 잠시 동안 고린도에 왔었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에게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는 바울에게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장로교인들이라고 하며, 어떤 자들은 우리는 침례교인들이라고 하고, 또 감리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교리적 교파나 특별히 유명한 지도자로 당신 자신을 규정함으로 스스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담을 쌓는 그런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바울은 당파 근성 때문에 그들을 비난했던 것인데, 그는 그것을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표식이었고, 영적 어린 아이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애써 또박또박 주워 담을 수가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또는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닌, 그들의 헌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 고린도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심은 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물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끌려야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 고린도에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구절에 있어 강력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에게 매력이 끌립니다. 그러나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아볼로가 심었고, 행 19 장에서는 바울이 이어 와서, 물을 주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씨에 물을 주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 장소에서 우리가 심고 있을지 모르나, 다른 장소에서는 물을 주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분이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사람과 개성을 묶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싸이면 당신은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역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며, 주님, 당신이 우리들에게 모델로 세워주신 초대교회로부터 온 이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인, 몸의 머리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할 당신의 종으로서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영광을 가져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행하셨던 것과 행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당신의 도구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